

‘2023 여자월드컵’ 남·북이 함께 연다고?

인판티노, 축구평의회 회에서 언급
차기 회장 선거위한 이슈물이 시각도
한국도 여자월드컵은 개최학적 없어
문체부는 긍정적...북측 의지가 중요

또 하나의 스포츠 빅 이벤트가 성사될 수 있을까.

이번엔 여자월드컵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3년 여자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인 인판티노 FIFA 회장은 4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국제축구평의회(IFAB) 회의에서 “남북한이 2023년 여자월드컵 공동 유치를 신청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남북 공동개최는 FIFA의 구상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9아시아컵 결승전이 열린 2월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인판티노 회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과 2032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에 힘을 실어주면서 올림픽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듯, FIFA 또한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려왔던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3년 여자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인 인판티노 FIFA 회장은 4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국제축구평의회(IFAB) 회의에서 “남북한이 2023년 여자월드컵 공동 유치를 신청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2019 프랑스 여자월드컵 공인구를 들고 웃고 있는 인판티노 FIFA 회장. (로마(이탈리아) | AP뉴시스)

보인다. 아울러 6월 열리는 FIFA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인판티노 회장이 세계적 관심사인 남북문제와 공동개최를 염두에 둔 이슈물이에 나선 것으로도 관측된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중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 공동개최는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체부는 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지만 일단은 긍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축구협회가 이런 의향을 FIFA에 전달했고, 인판티노 회장이 이 부분을 IFAB 회의에서 언급한 것이다.

2023년 대회 유치는 이미 호주, 콜롬비아, 일본, 남아공 등이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은 그동안 월드컵(2002년)을 비롯해 U-17월드컵(2007년), U-20월드컵(2017년) 등 FIFA 주관 남자 대회는 개최

했지만 여자 대회는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를 떠나 축구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 또 한국은 인프라뿐 아니라 대회 운영 능력도 갖췄다.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의중이다. 공동개최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이다. 북한과의 접촉은 FIFA가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대하면 없던 일이 된다. 반대로 북한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그 때부터 실무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시아컵 유치와의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한국은 2023년 아시아컵 유치를 힘을 쏟고 있다. 1960년 이후 63년만의 유치 도전이다.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5월 AFC 총회에서 개최국이 결정된다. 아시아컵은 2023년 1월, 여자월드컵은 6월에 열린다. 일정이 겹치진 않지만 같은 해에 큰 대회가 연거푸 열리는 건 감당하기 힘들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개의 국제대회를 한해에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남북이 공동으로 여자월드컵 개최를 신청하게 되면 아시아컵과 함께 유치작업을 병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한쪽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FIFA는 15일까지 유치 신청 의사를 접수한 뒤 4월 16일 신청 등록을 마감한다. 유치 도시 선정은 2020년 3월 투표로 결정된다. 결국 FIFA와 북한의 실무 협상이 내달 중순까지는 윤곽을 드러내야만 유치 신청도 가능하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내가 왜 떴게?

연탄이 되는 법



뷔와 반려견 연탄

●BTS 뷔, 반려견 연탄 : 방탄소년단 뷔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팬들로 하여금 탄식을 터뜨리게 했다. 사진 속에서 뷔는 반려견을 안고 있다. 까만 털이 있는 반려견의 이름은 연탄. 뷔는 연탄이와 따뜻한 시선을 맞춘 뒤 부드럽게 뽀뽀를 하고 있다. 팬들은 “연탄이가 귀엽다”를 넘어 “부럽다”는 반응 폭발이다. 심지어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연탄이 되는 방법’이란 검색어가 인기를 끌었을 정도. 연탄이가 어렵다면 하루쯤 뷔의 스마트폰이 되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수십 번 이상 뷔와 단 둘이서만 눈을 마주칠 수 있을 테니.

또 공황장애, 우울증이나



쿠시

●쿠시, 징역 5년 구형 : 결국 인정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힙합 프로듀서 쿠시를 마약류인 코카인 매수 및 흡입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쿠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쿠시가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쿠시를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그놈의 공황장애와 우울증, 이제 이겨내지 못할 만큼 ‘집요한 유혹’을 했다는 지인을 잡으러 갈 차례인가.

100전 100패



이지혜와 딸

●이지혜, 아기수영 : 방송인 이지혜가 아기와 함께 욕실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쉬는 날이 없는 엄마. 물을 좋아하는 딸. 오늘따라 칭얼대는 우리 딸 덕분에 일년은 늙은 것 같다 ㅋㅋ 엄마 성격 많이 죽었다”라는 글과 함께다. 파란 수영복을 입은 엄마 손에 안겨 물놀이를 하는 딸의 표정이 해맑기 그지없다. 그림엽서 엄마 성격 썩 봐야 아기한테는 100전 100패입니다.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강다니엘, 소속사와 분쟁...솔로 활동 비상

“전속계약 내용 수정해 달라”
소속사 상대 법적 대응 준비
합의점 못찾아 갈등 커질듯



강다니엘

그를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와 분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강다니엘의 솔로 활동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요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가요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2월1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를 상대로 “같은 달 28일까지 전속계약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주시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다니엘은 이후 소속사의 응답이 없자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강다니엘과 소속사 측은 4일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LM은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윤지성이 연습생 시절부터 몸담았던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가 두 사람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기 위해 올해 새로 설립한 기획사다. 이에 강다니엘은 1월27일 워너원의 콘서트를 끝으로 모든 그룹 활동을 마무리하고 LM에 새 동지를 틀었다. 하지만 불과 4일 만에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강다니엘이 그동안 연예계 안팎으로

막강한 스타성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확보해온 만큼 그의 이런 행보를 둘러싸고 갖은 의심의 시선이 난무하고 있다. 워너원의 한 멤버 관계자는 이날 “멤버 전원이 연습생 계약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안다”면서 “양측이 어떤 내용을 추가로 계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강다니엘이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가 지난해 워너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룹 박병 멤버인 승리의 소개로 알게 된 중년여성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A씨는 강다니엘의 홀로서기를 돕겠다며 엔터테인먼트업계 ‘큰 손’으로 알려진 B씨에게 투자 의사를 타진하는 등 두 자자를 몰래해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강다니엘은 2017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나서 가요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올랐다. 1월 초 개인 SNS를 개설해 최단시간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하며 기네스 월드레코드에도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정연 기자 amjoy@donga.com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에이스 서승재(오른쪽)와 채유정이 4일(한국시간) 독일 뮐하임에서 열린 2019 독일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혼합복식에서 우승하며 2주 연속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AP뉴시스

서승재-채유정, 배드민턴 혼복 뉴스타 탄생

지난달 복식 결성 스페인 대회 우승
2주만에 독일오픈 정상 ‘톱10’ 진입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에이스 후보로 꼽히는 서승재(남·22·원광대)가 채유정(여·24·삼성전기)과 함께 2주 연속 셔틀콕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채유정은 4일(한국시간) 독일 뮐하임에서 열린 2019 독일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혼합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1위 하피즈 파이잘-글로리아 엠마뉴엘 위즈자자(인도네시아)를 2-0(21-17 21-1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서승재-채유정은 지난달 24일 스페인 마스터스에서 복식조를 결성한 뒤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독일 오픈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세계랭킹 10위까지 오르며 ‘톱10’ 진입에도 성공했다.

서승재는 고교시절부터 왼손 장신 공격수로 큰 주목을 받았다. 고교 1학년 때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수비는

력이 뛰어나고 정교한 네트플레이가 장점인 채유정과 혼합복식조를 이루면서 큰 시너지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덴마크 오픈 혼합복식 3위를 차지하고 중국 오픈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뒤 올 시즌 연이어 정상에 오르고 있다.

서승재는 혼합복식과 함께 남자복식에서도 큰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김원호(20·삼성전기)와 짝을 이룬 남자복식조는 지난 달 스페인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혼합복식조가 된 서승재-채유정은 영국으로 이동해 6일부터 버밍엄에서 열리는 2019 전영오픈에 출전한다.

전영오픈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주관하는 국제대회 중 가장 높은 권위와 전종을 자랑한다. 세계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다. 내년 도쿄올림픽 메달에도 전하는 서승재-채유정도 정상급 복식조와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올해 전영오픈에는 이흥대(요넥스)-김기정(삼성전기)도 개인자격으로 남자복식에 출전한다. 이정훈 기자 rush@donga.com